

인문학특강 '전북 문화 바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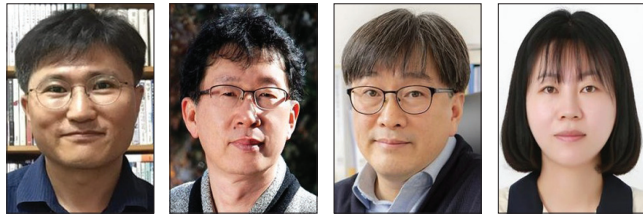
최명희문화관, 9월 2·23일 진행

훈불기습사업회와 최명희문화관에서 매년 개최하는 인문학특강 '전북 문화 바로 알기'가 9월 2일과 23일 총 네 차례 열린다.

이에 따르면 먼저 2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문신·정철성 문학평론가가 전라북도의 민족 문학을 말한다.

문신 문학평론가는 '남민의 시대: 80·90년대 전북 민족 문학의 운동성'을 주제로 전북 지역 민족문학인의 작품세계가 사회·역사적 발전 과정과 어떻게 부합하고 변모해 가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당시의 '남민 의식'과 문학운동의 의미를 확인해 본다. 지역 작가의 작품 읽기를 즐기는 문신 평론가는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문학작 글쓰기의 원리와 방법을 강의하며, 시·동시·동화·문학평론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집과 이론서를 냈다.

또 정철성 문학평론가는 '80·90년대 민족 문학의 전북 시인들'을 주제로 독자 시와 시인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시를 읽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핀다. 80년대 이후 전북 지역 시인들이 어떤 자세로 시를 써왔는지를 추적하면서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시와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영미문학을 전공하고 전주대학교에서 강의하다 올해 퇴직한 정철성 평론가는 지역의 시와 소설에 관심이 기울어져 평론을 시작했다.



문신 문학평론가 정철성 문학평론가 이정욱 전주대 교수 송정현 전주대 교수

발표가 드문 편이지만, 여전히 지역 문학에 대한 애정이 깊다. 평론집 '새김'을 냈다.

이어 23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와 송정현 HK 연구교수가 일제강점기·미군정기 전북의 생활상을 들려준다.

이정욱 교수는 '서양인 선교사가 기록한 전주(1936년)'를 주제로, 전주예수병원 관계자를 통해 수집한 1936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의 기록 필름 영상을 통해 일제강점기 전주의 교육·의료·종교를 포함한 전주 시민의 삶을 들여다본다. 총 76분 분량 중 전주에 해당하는 32분의 영상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일제강점기 전주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확인한다. 일제강점기 영화·연극을 연구해 온 이정욱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이미지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중견 연구자다. 특히, 전북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역사문화 자원

일상을 소개한다. 미군정은 새로운 권력 주체임을 자처하며, 지역 사회의 해체와 재편 과정에서 일상의 풍경까지 변화시켰다. 일제강점기의 저항정신을 보였던 전북은 미군의 점령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정기 전북의 이모저모를 미국·호주·일본 등지에서 수집한 전문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중앙 중심적인 기존의 연구 시각에서 탈피한 '비군정의 지방 통치 연구(1945-46)'로 박사학위를 받은 송정현 교수는 지금까지 해외 자료 수집과 교류로 성과를 축적해가며 연구자의 권위를 넓히고 있다.

최명희문화관 최기우 관장은 "콘텐츠는 이야기에서 시작되고 넓어진다"면서 "여럿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콘텐츠는 더 단단하고 세밀해지며, 전라북도에 대한 자긍심과 창작 의욕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에는 최명희문화관(063-284-0570)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30일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SBS TV 동물농장에서 11년간 문재전 해설사로 활약하고 있는 반려견 심리전문가 이용종 연암대학교 교수(사진)가 출연해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삶'을 주제로, 반려견 조련사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와 반려동물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이유와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비롯해 반려견 행동교정과 예절교육, 노령동물 돌봄과 산책 훈련, 개물림 사고 방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준비된다.

이용종 교수는 현재 이삭예견훈련소 대표로도 활동 중이며, KCMC문화원 원장으로 한국형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우리음악 즐기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출연해 판소리와 기악중주 등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문화재단, '이퀄리브리엄: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展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공동으로 '이퀄리브리엄: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8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며, 개막식은 24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된다.

재단이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이 전시는 '그린네상스 프로젝트-예술로GREEN전주'의 일환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최초 기획해 전국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전시를 재구성했다.

참여 작가로는 △물어내(인도네시아) △유지수(한국) △커진위엔(대만) △김철아(한국) △소보람(한국) △정희정(한국) △장전프로젝트(장준영&전지윤)/(한국) 등 3개국 7팀이다. 이들은 미디어아트, 설치, 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대형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팍페라&뮤지컬' 28일 공연

부안군은 '팍페라&뮤지컬' 공연을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에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팍페라&뮤지컬'은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팍페라, 뮤지컬 갈라 콘서트로 이루어지며, 클래식과 퓨전을 넘나드는 대한민국 최고의 카운터테너 루이스조이가 출연한다.

또한, 음색의 바리톤 정진원, 소울 가득한 음색의 소프라노 정성미 등 여러 출연진이 참여하는 환상의 홀리카 뮤지컬앙상블팀과 클나무

오케스트라가 만나 멋진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맘미아 중 '넌 싱킨', 시카고 중 '올댓재즈', 파리엘리 중 '켓츠송' 등이 준비되었다.

이번 공연은 정열적이고, 풍성한 음악으로 신선함을 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선물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클래식 오페라, 소공연장을 입다

더클래식아트홀, 25~26일 '한옥마을을 찾은 약장수' 공연

더클래식아트홀(대표 박진철)이 오페라 '한옥마을을 찾은 약장수'를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더클래식아트홀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의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교육 프로그램을, 신진·아마추어 예술가를 위한 작은 음악회 등을 기획하며 지역 친화형 공연장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올해 재단의 민간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더클래식아트홀이 야심차게 기획한 '한옥마을을 찾은 약장수'는 재치 넘치는 코믹 오페라로 유명한 '사랑의 묘약'에 '별주부전'이라는 전통적인 요소와 '한옥마을'이라는 지역적 요소를 가미해 오페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관객들도 편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다.

특히 피아노에 조예담, 토기 역에 정아롱 다홍과 이효인, 아디나 역에 김리라, 네모리노 역에 김성진, 돌까마라 역에 김대열, 벨고레 역에 박세훈이 참여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박진철 대표는 "'한옥마을을 찾은 약장수'는 오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관객도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소극장 규모에 맞춰 기획된 공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들어 가는 전북 음악계에 큰 파



장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며, 전북 대표 오페라 소극장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한옥마을을 찾은 약장수'는 25일 오후 7시 30분, 26일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전주 더클래식아트홀(완산구 백제대로 299, 지하 1층)에서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은 전석 1만원이며, 예매 및 공연 관련 문에는 더클래식아트홀(010-7546-3337)에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외국인 시선으로 보는 판소리 미학

국립무형유산원, 30일 국악인 마포 로르 인문학 강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소공연장에서 국악인 마포 로르와 함께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판소리의 미학'을 주제로 한 책마루 문화프로그램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5일 K-콘텐츠 속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공연예술가 김관현)를 주제로 한 첫 강연 이후, 6월 15일에는 여행작가 정태경이 '세계 속에서 발견한 우리 무형유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세 번째 강연자인 마포 로르는 카메룬 출신의 프랑스인이자 우리나라에서 국악을 배우고 있는 소리꾼으로, 그녀의 삶을 소리꾼의 길로 이끈 판소리의 매력과 의미, 소리꾼이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연은 9월 1일 개막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유산 종합축제인 '2023 무형유산축전'을 앞두고 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판소리의 아름다움과 무형유산의 미래 가치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은 무료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책마루 누리집(https://library.nihc.go.kr) 또는 전화(063-280-1578, 070-4905-1296)로 신청하면 된다. 강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현재와 미래를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